여성, 순례, 새로운 기억과 서사: 미래교회(FutureChurch)의 로마 순례

최 화 선*

1. 머리말
2. 미래교회의 여성 사제 서품 운동
3. 여성주의 전례 운동과 미래교회의 순례
4. 미래교회의 순례 : 그 장소에서 기억하고 행한 것들
5. 맺음말

1. 머리말

2007년 3월, 로마의 북부 근교 살라리아 가도(Via Salaria) 지하에 있는 프리스킬라(Priscilla)[1] 카타콤. 한 무리의 여행객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안내자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직접 손전등과 쌍안경을 들고 카타콤 벽면의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다. 그 태도가 좀 더 진지해 보인다는 것 외에는 다른 관광객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그런데 잠시 후 이들을 다른 관광객들과 구별시켜주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둥글게 서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어서 성서를 낭독했다. 이들이 낭독한 구절은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오로의 전도여행에 동참한 아퀼라(Aquila)와 프리스킬라에 관한 구절이었다. 곧이어 이들은 "**우리는 빵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며 이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로 시작하는 화답송을 불렀다. 기도와 찬송이 이어진 후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의 상징으로서 이 빵을 들고, 축복하고, 떼어서 함께 나눕니다.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곁**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시간강사

1) '프리스킬라'는 고전 라틴어 발음으로 읽은 것이다. 프리스킬라는 대부분의 한국어 성서에 '브리스길라'로 나와 있다.

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느님의 존재를 선포하면서."[2] 그리고 이들은 가져온 빵을 떼어서 서로 나누어먹었다.[3]

이들은 미래교회FutureChurch라는, 미국 클리블랜드에 기반을 둔 가톨릭 교구 연합 단체의 주도로 로마에 온 순례자들이었다. 미래교회는 1990년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성 요셉 수녀회의 수녀인 크리스틴 쉔크(Christine Schenk)에 의해 조직된 교구 연합 단체로서, 여성 사제직 허용과 사제 독신제 폐지를 통한 가톨릭 사제직 개혁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래교회가 여성 사제/여성 교회 지도자들의 역사성을 규명하고 이를 가톨릭 신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획한 것이 바로 순례였다.

미래교회에서는 초기 그리스도교 여성 사제직의 증거를 찾아 볼 목적으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순례단을 조직했다. 크리스틴 쉔크 수녀는 2006년 로마 순례 중 가톨릭 뉴스 서비스(Catholic News Service)와의 인터뷰에서 "순례를 통해 여성 신자들에게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의 흔적을 보여주고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여성들에 관해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했다"고 밝혔다.[4] 2006년 3월 31일에서 4월 8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순례에서는 31명의 순례자가 참여했으며 쉔크 수녀와 고고학자인 도로시 어빈(Dorothy Irvin)이 해설자로 동행했다. 2007년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순례에서는 17명의 순례자가 참석했으며, 쉔크 수녀와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사를 전공한 쟈넷 털록(Janet Tulloch)이 해설을 담당했다. 순례 참가자는 2007년의 남성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고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나 미래교회의 로마 순례는 일반적인 가톨릭교회의 로마 순례와는 그 목적이 달랐다. 일반적인 가톨릭교회의 로마 순례가 성서 속 사도들 및 순교자들의 자취를 찾아보고, 그러한 장소들에서 자신들의 정통신앙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순례라면, 미래교회의 로마 순례는 가톨릭교회의 정통적인 가르침에 반하는 주장, 즉 초기 그리스도교에 여성 사제가 존재했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순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교회 순례는 정통 신앙의 맥락 안에

---

2) Prisca: Co Worker in the Gospel 의례 지침서, *Celebrating Women Witness Resources Packet,* FutureChurch.

3) Margot Patterson, "Finding 'Herstory'", *National Catholic Reporter,* Issue Date: June 22, 2007 http://natcath.org/NCR_Online/archives2/2007b/062207/062207a.php

4) Carol Glatz, U.S. "Canadian Catholics tour Rome to Honor Lives of Church Women", Catholic News Service, *Prairie Messenger Catholic Journal,* 7 Apr. 2006

서 행해진 순례가 아니라, 정통 신앙에 도전하는 의도를 갖고 기획된 순례였다.

순례에 대한 근래의 연구는,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경건한 신앙심'만이 순례의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순례가 기존 신앙의 권위에 순응하고 이러한 권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었다.[5] 그러나 정통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순례에서는 보통 새로운 성지 및 새로운 순례 코스가 만들어지는 데 반해,[6] 미래교회 순례는 기존 가톨릭 성지인 로마의 카타콤과 교회들을 방문하는 코스로 이루어져졌다. 그렇다면 이들은 기존의 가톨릭 성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하여,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신들만의 순례를 만들어냈을까.

이 글은 미래교회 순례자들이 순례지에서 행한 의례에 중점을 두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순례는 순례지에 부여된 성스러운 내러티브와 이러한 내러티브에 대한 순례자들의 적절한 의례 행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순례의 경우, 순례자들은 순례지에 부여된 성스러운 내러티브에 동의하며 이럴 경우 순례자들의 순례지 의례는 "그 장소에 적절한" 내러티브를 기억하며 재현하는 것이 된다.[7]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순례자들이 순례지에 와서 기존의 내러티브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의 내러티브에 순례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다.[8]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에도 대부분 기

---

5) Edith & Vitor Turner,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John Eade and Michael Sallnow eds., *Contesting the Sacred: The Anthropology of Christian Pilgrimage*, London: Routledge, 1991; Alan Morinis, ed., *Sacred Journeys: The Anthropology of Pilgrimage*,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92.

6) Peter W. Wood, "Pilgrimage and Heresy: The Transformation of Faith at a Shrine in Wisconsin", in *Sacred Journeys: The Anthropology of Pilgrimage*, pp. 115-134을 볼 것.

7) 4세기 「에게리아의 여행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ostendebantur iuxta Scripturas (성서에 따라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현존 필사본의 첫 구절이 암시하듯이, 에게리아는 모든 장소를 성서적 내러티브에 따라 경험하며, 각 장소마다 성서 구절을 낭송하는 의례를 행한다. *Itinerarium Egeriae*, in A. Franceschini and R. Weber, *Itineraria et alia geographica*, CCSL 175, pp. 27-103.

8) 순례자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관해서는 Candace Slater, *Trails of Miracles: Stories from a Pilgrimage in Northeast Brazi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참고. 기존의 내러티브에 순례지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첨가된 예로서는 셀레우키아의 테클라 성지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테클라 행전」의 내용에 새로운 후기가 덧붙여진 「셀레우키아 판 테클라 행전」이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

존 내러티브의 중심인물은 그대로 유지되고 단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기적 이야기 등이 첨가되는 정도다. 미래교회 순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기존 가톨릭 성지의 내러티브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자 했으며, 또한 '의례'를 통해서 이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순례지가 단지 그 공간을 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종교적 권위자들의 힘과 지향만이 아니라, 그 장소를 찾는 순례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의미,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이해할 때,[9] 미래교회의 순례는 순례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기존의 맥락과 다른, 순례의 새로운 성스러운 맥락을 창출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미래교회가 추진해 온 여성 사제 서품 운동의 맥락에서 순례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를 여성주의 전례 운동의 맥락에서 검토해보겠다. 이어서 미래교회 순례자들이 순례지에서 '보고', '행한 일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미래교회의 순례는 순례자의 기억과 이러한 기억의 의례화를 통해 순례지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논의해 보겠다.

2. 미래교회의 여성 사제 서품 운동

미래교회의 로마 순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교회의 기본 입장과 가톨릭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미래교회가 추진해 온 사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교회의 홈페이지에 드러난 그 미션과 비전을 살펴보면, 미래교회가 여성 사제 서품 및 사제 독신제 폐지를 통한 사제직 개혁을 요구하며 또한 이러한 사제직 개혁이 필요한 근거를 다음의 두 가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제부족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사제 독신제 폐지와 여성 사제 서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초기 교회 전통에서는 결혼한 사제뿐만 아니라 여성 사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제 독신제 폐지는 물론) 여성 사제서품은

은 Stephen J. Davis, *The Cult of St. Thecla: A Tradition of Women's Piety in Late Antiqu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45-46.

9) 최화선, "고대 후기 그리스도교 순례에 관한 연구: 4-6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123-124쪽 참고.

결코 교회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10)

미래교회가 제시하는 이 두 가지 근거는 정통 가톨릭 신앙을 존중한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즉 사제직부족현상으로 인해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는 사태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사제 독신제 폐지와 여성 사제직 허용은 가톨릭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정통에서 어긋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통해 미래교회는 스스로를 가톨릭 교회 전통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이 때 가톨릭 교회 전통과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여성 사제의 역사적인 존재 유무에 대한 부분이다. 가톨릭 교회가 여성 사제 서품을 반대하는 논리 역시 여성 사제의 역사성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성 사제를 허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교회처럼 가톨릭 내부의 논리를 따라서 여성 사제 운동을 펼치는 입장에서는 여성 사제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것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다.11)

따라서 미래교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주교들에게 여성이 설교하고 복음을 읽을 권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바티칸에 여성 사제 서품에 관한 토론을 청원하는 것 외에도, 여성 사제/여성 지도자들의 역사성을 규명하고 이를 가톨릭 신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에 많이 할애되어 있다. 미래교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여성과 말씀: 여성을 성서 속으로 되돌리기Women and the word: put women back in the Bible picture", "교회

---

10) 미래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그 미션을, "모든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교회의 삶과 지도직에 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변화를 추구한다"고 소개한다. 이어 그 비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미래교회가 다음 네 가지를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 1) 가톨릭 교회의 예배, 조직, 통치에 있어서 정의롭고 열린, 협력적인 구조 2) 결혼한 사제와 독신 사제 모두를 포함하는 교회의 초기 전통으로의 귀환 3) 신앙 공동체의 남성 여성 지도자를 모두 포함하는 교회의 초기 전통으로의 귀환 4)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삶의 핵심인 성체성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자주하는 질문란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며, 교회 밖이 아닌 내부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단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http://www.futurechurch.org/about/

11) 하지만 여성 사제 서품에 대한 요구는 여성 사제의 역사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필립 루소(Philip Rousseau)나 캐롤린 오식(Carolyn Osiek)과 같은 학자들은 미래교회가 불확실한 역사-즉 여성 사제의 역사성이라는 확증불가능한 증거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한다. 여성 사제 서품에 대한 요구는 현시대의 필요성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근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마곳 패터슨의 인터뷰 기록 참고. Margot Patterson, "Finding 'Herstory'"

지도직의 여성들 Women in Church Leadership", "여성 증인들의 찬양: 가톨릭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을 재발견하기 위한 프로젝트 Celebrating Women Witness: A Project to Rediscover Women Leaders in the Catholic Church", "막달라 마리아의 재조명 St. Mary of Magdala" 등이다.[12] 그런데 미래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같은 프로젝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 사제/지도자들의 역사성을 단지 최근의 문헌적/고고학적 연구 결과물들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 가톨릭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의례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의 재조명" 사업은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를 초기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지도자로 재해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7월 22일에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하는 축일 행사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이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축일이 아닌 연중 각 교구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의례문들을 제공하며, 나아가 성체 성사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3] 가톨릭 미사의 독서에서 제외된 성서 속 여성들에 대한 구절들을 복원하기 위한 "여성과 말씀" 프로젝트에서는 교구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미사의 독서에 여성들에 관한 구절을 첨가할 것을 제안한다.[14] 또한 "교회 지도직의 여성들"에 대한 프로젝트 역시 단지 교회사에서 잊혀진 43명의 여성들을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식을 실제 교구 활동 속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15]

여성 사제/지도자들의 역사성을 '의례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여성 증인들의 찬양"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을 재발견하여, 이들을 매달 의례 속에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성 증인들의 찬양"을 위해 만들어진 패킷에는 각 여성 증인들

---

12) 그 밖에 미래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상시 프로젝트는, "Optional Celibacy: so all can be at the table", "Save our Parish Community," "A million Voices", "The Future of Priestly Ministry", "Corpus Christi Campaign: fewer priests, fewer parishes archives"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교회의 홈페이지 참조.

13) http://www.futurechurch.org/marym/ 의례 지침서가 필요한 사람은 간략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14) Christine Schenk, *Women in the Lectionary: Suggestions for Celebrating an Inclusive God in Jesus Christ,* FutureChurch. 또한 http://www.futurechurch.org/watw/ 을 참고할 것

15) Christine Schenk, *Women Leaders in Early Christianity, CD and Presenter's Guide.* FutureChurch. 2009. 또한 http://www.futurechurch.org/wicl/ 을 참고할 것.

에 대한 소개와 설명의 글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의례 지침서가 포함되어 있다. 약간의 개별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의례 지침서는 보통 시작하는 노래와 각 여성 증인들에게 바치는 기도문, 각 여성 증인에 부합되는 성서 구절, 시편, 화답송, 그리고 마침 노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6]

이같은 '의례화'의 노력 때문에, 미래교회의 여성 사제의 역사성에 대한 주장이 가톨릭 교회의 여성사제 서품 반대 입장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여성 의례를 창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된다. 미래교회의 순례 역시 이 같은 '의례화'의 맥락에서 기획된 것이다.

3. 여성주의 전례 운동과 미래교회의 순례

로즈마리 류터는 여성들이 더 이상 교회가 공식적으로 전례를 바꾸어주길 기다릴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여성들의 예배, 전례를 위한 지침서를 제안했다.[17] 여성주의 전례 운동에서는 여성들의 경험을 기존 전례에 통합시키는 것 및 남성중심적인 의례 언어, 공간의 개혁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그 중 특히 우리가 지금 다루는 미래교회의 순례와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특징을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여성주의 전례 운동에서는 성서 안에 나타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시금 기억해내어 이를 전례 속에 부활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는 곧 엘리자베스 쉬슬러 휘오렌자가 말하는 '기억의 해석학' (hermeneutic of remembrance) 즉, 잊혀졌던 선배 여성들의 이야기를 역사적 비판적으로 재건하는 것과 연결된다.[18]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를 단지 '역사' 속으로 복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원된 기억을 의례로 만들어 직접 수행하는 데 있다. 미래교회가 진행하는 여성 사제 서품 운동 역시 단순히 기억의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의례화'하여 신자들이 이를 직접 몸으로 행하게 만드는 데 있으며, 순례 역시 이러한 '의례화'의 한 부분이었다.

---

16) *Celebrating Women Witness Resources Packet*, FutureChurch.

17) Rosemary Radford Ruether, *Women-Church: Theology and Practice of Feminist Liturgical Communities*, San Francisco: Harper & Row,1985.

18) 백은미, "여성주의 예전을 통한 교육 목회의 가능성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9집, 259-271. 특히 255; Elizabeth S. Fiorenza, "The Will to Choose or to Reject: Continuing Our Critical Work,"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 Letty M. Ruse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둘째, 여성주의 전례 운동에는 "전례를 통해 신학을 바꿀 수 있다" 는 믿음이 깔려있다. 여성주의 전례 연구자 수잔 로스는 "전례는 신학이다. 타인들, 세계, 신과의 관계를 세심하게 표현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부장적 전례의 의도적인 전복이라는 점에서"라고 말했다.[19] 또한 로즈마리 류터는 성차별에서 해방된 인류애로 나아가는 길에는 이성적 이론적 담론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들을 이끌어가는 상징과 상징적 행위들을 만들고 이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20] 여성주의 전례 운동에서는 이처럼 의례를 '수행'하는 것이 곧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암시되어 있다. 특히 미래교회처럼 교회 내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 즉 교회의 전통을 앞세우고 교회의 전통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신학 자체에 정면적인 도전을 던지기보다, 이같이 의례를 통해 신학을 바꿔나가려는 입장을 택하기가 더 쉽다. 따라서 미래교회의 여성 사제 서품운동은 정통 가톨릭 신학에 어긋나는 견해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의례를 통해서 기존의 신학이 지배하는 공간과는 다른 공간을 창출하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교회의 여성 사제 서품 운동과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놓인 순례는, 교회사 속의 여성 지도자들을 오늘날 가톨릭 의례 속으로 불러내고, 이들에 대한 새로운 기억이 궁극적으로 기존의 교회사를 새롭게 서술하고 기존의 신학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는 여성주의 전례 운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4. 미래교회의 순례 : 그 장소에서 기억하고 행한 것들

글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프리스킬라 카타콤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날 미래교회 순례자들이 빵을 나누는 의례를 행한 곳은 프리스킬라 카타콤의 그리스 경당(Capella Greca)이었다. 이곳의 제대 위쪽 아치에는, 일곱 사람들이 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성찬을 나누는 장면이 묘사된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다.<그림 1 참조> 프락티오 파니스(Fractio Panis, 빵 나누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프레스코화는, 1894년 예수회 미술사학자인 요세프 빌페르트Joseph Wilpert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빌페르트와 그의 스승이었던

19) Susan A. Ross, *Extravagant Affections: A Feminist Sacramental Theology,*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98, p. 31.

20) Romsemary Radford Ruether, *op. cit.,* p. 3.

데 로시De Rossi는 이 프레스코화가 여섯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성체성사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같은 견해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21]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미래교회 순례자들은 이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이 프레스코화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성찬을 나누고 있는 일곱 명이 모두 여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락티오 파니스는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작품 중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이다. 정말 이들이 모두 여성인지, 혹은 남성과 여성이 섞여있다면 누가 남성이고 누가 여성인지, 그리고 과연 정말 그들이 성체성사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장례의식의 일부였던 장례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것인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22] 비록 쉔크 수녀는 프레스코화에 묘사된 이들이 모두 여성이며 이들이 성체성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이 그림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여성들이 직접 성만찬을 집행하는 사제의 역할도 수행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 확신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리스 경당의 양쪽 벽면에는 미래 교회 순례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 본 또 다른 프레스코화가 있었다. <그림 2 참조> 한 여성과 이를 둘러싼 남성들이 등장하는 일련의 벽화들은 구약의 다니엘 서에 나오는 수잔나 이야기라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장면이 여성의 서품식을 묘사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23] 2007년 순례의 해설자인 털록

---

21) Nicola Denzey, *The Bone Gatherers: The Lost Worlds of Early Christian Women* Boston: Beacon Press, 2007, pp. 91-93. De Rossi는 1888년, 이미 17세기에 일부 발굴된 적 있던 프리실라 카타콤의 재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빌페르트는 그의 젊은 조수였다. 17세기 발굴에 관한 이야기 및 데 로시의 발굴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osef Wilpert, *Fractio Panis: Die alteste der eucharistischen opfers in den 'Capella greca'*, Freiburg im Breisgau: Herder, 1895; idem., *La fede della chiesa nascente,* Vatican City: Pontificio Istituto di Archeologia Cristiana, 1938, pp. 97-99.

22) 프락티오 파니스가 여성들만의 성체성사를 묘사한 그림이며, 따라서 초기 교회에서는 여성도 성체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라는 주장을 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Joan Morris, *The Lady Was a Bishop: The Hidden History of Women with Clerical Ordination and Jurisdiction,* New York: MacMillan, 1973; Dorothy Irvin, "The Ministry of Women in the Early Church: The Archaeological Evidence," *Duke Divinity School Review* 45 (1980), pp. 76-86, 특히 p. 83; Karen Jo Torjesen, *When Women Were Priests: Women's Leadership in the Early Church and the Scandal of Their Subordination in the Rise of Christianity,*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3, p. 52.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격렬하게 반대한 학자들도 있다. K. M. 어윈과 도로시 어빈은 이 문제에 관한 격심한 논쟁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Nicola Denzey, *op. cit.*, pp. 95ff.

은 이같은 해석을 선호하지만, 이 장면이 확실히 여성의 서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 역시 인정했다.[24]

따라서 프리스킬라 카타콤에서 미래교회 순례자들이 초대 교회 여성 사제직의 존재를 알려주는 증거물로 찾아 본 프레스코화들은 모두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확실하고 만족스러운 증거물은 아니었다. 사실 프리스킬라 카타콤의 프레스코화들에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서로 공존하는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거기에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 바티칸의 순례 안내서와 프리스킬라 카타콤 순례 안내서의 설명 -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갖춘 내러티브는 없었다.

하지만 미래교회 순례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의례'를 통해 극복했다. 쉔크 수녀는 순례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미래교회의 "여성 증인들의 찬양" 중 프리스카를 기념하는 의례를 행했다. 프리스킬라라고도 불리는 프리스카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오로의 협력자로서, 미래교회에서는 그녀를 초대 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명으로 여긴다. 특히 미래교회는 "프리스카가 남편 아퀼라와 함께 자신의 가정교회에서 성체 성사를 집전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녀를 기억하는 의례를 '작은 성체성사(small e eucharist)'로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25] '작은 성체성사'란 도입부에서 묘사한 것처럼 사제 없이 의례 참가자들이 서로 빵을 나누는 의례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교회는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던 프리스카, 그리고 그녀가 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빵을 나누는 초대교회의 성체 성사를 프락티오 파니스 앞에서 '기억'하고 또 이를 직접 '행함'으로써, 이 장소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때 이들이 의례를 통해 기억하는 사도행전의 프리스카/프리스킬라는 사실 이 프리스킬라 카타콤에 이름을 준 프리스킬라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다. 프리스킬라 카타콤의 프리스킬라는 이 카타콤이 위치한 곳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로마의 귀족 여성이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프리스킬라가 이 카타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Liber Pontificalis*에 의하면 9세기 중반 교황 레오 4세가 많은 순교

---

23) Nicola Denzey, *op. cit.*, pp. 95-100 참고

24) Janet H. Tulloch, "Women Leaders in Family Funerary Banquets," in Carolyn Osiek and Margaret Y. MacDonald, *A Woman's Place: House Churches in Earliest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2006, pp. 164-193.

25) Prisca- Co Worker in the Gospel.

자들의 유해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목록에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의 이름이 나온다.[26] 따라서 로마의 프라스킬라와 사도 행전의 프리스킬라는 '카타콤'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 그러나 미래교회는 이같은 역사적 연관관계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동명(同名)에서 비롯되는 의례적 융합의 효과를 더 강조한다. 즉 이들이 행한 작은 성체성사 의례를 통해, 로마의 프리스킬라 카타콤(장소), 그와 이름이 같지만 다른, 그러나 교회사에서 중요한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초대교회의 또다른 프리스킬라, 그리고 그녀가 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 교회의 양성평등한 성체 성사를 기념하는 그림 프락티오 파니스로 이어지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의 또 다른 방문지 가운데 하나인 성 프락세데스(Praxedes) 교회(이탈리아에서는 산타 프라세데Santa Prassede 라고 불린다)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자. 성녀 프락세데스는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었던 성 푸덴스(Pudens)의 딸이며, 성녀 푸덴티아나(Pudentiana)와는 자매간이다. 중세의 성인전 「황금 전설(*Legenda Aurea*)」에 따르면 프락세데스와 푸덴티아나는 많은 순교자들의 유해를 거둬 매장했으며, 165년 그들도 순교했다고 한다.[27] 이들의 유해는 원래 프리스킬라 카타콤에 안치되었으나, 4세기 프락세데스를 기념하기 위한 교회가 세워지자 이곳으로 옮겨졌고, 9세기 교황 파스칼 1세는 이곳에 현재의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 안 성 제노(xeno) 경당에는 에피스코파 테오도라(Episcopa Theodora)라는 표제가 새겨진 모자이크가 있다. <그림 3 참조> 여성 사제직의 역사적 존재를 입증하려는 이들은 에피스코파가 주교를 뜻하는 희랍어 에피스코포스(Episcopos)의 라틴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를 주교 테오도라라 읽어야 하고, 이는 곧 9세기 교회에 여성 주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제의 혼인이 허락되었던 초기 교회에서 주로 사제의 부인을 부를 때 사제 명칭의 여성형으로 불렀던 것과 관련해서, 여기 묘사된 이는 교황 파스칼의 어머니 테오도라이며, 그녀에게 에피스코파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은 로마의 주교였던 파스칼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프리스킬라 카타콤의 그리스 경당 프레스코화와 마찬가지로 성 프락세데스 교

---

26) George Edmundson, *Church in Rome in the First Century*,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13. pp. 243-244.

27) Jacobus de Voragine, *The Golden Legend: Readings on the Saints, vol.1, trans. by William Granger Ry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 374.

회 제노 경당의 모자이크도 여성 사제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미래교회 순례자들은 "여성증인들의 찬양" 중 켄크레아이(Cenchreae)의 포이베(Phoebe,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페베'라고 나와있다)를 기념하는 의례를 행했다. 바오로는 포이베를 우리의 자매이자, 켄크레아이 교회의 디아코노스(diakonos)이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후원자(prostatis)라고 소개한다.[28] 미래교회의 "여성증인들 찬양"에서 포이베는 바오로에 의해 합법적으로 그 직함을 인정받은 교회의 부제로 기억되며, 이를 기억하기 위한 의례에서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화답송을 부른다. "**오 하느님, 성녀 포이베는 바오로에 의해 자매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당신의 딸과 아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 오 하느님, 성녀 포이베는 부제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제직 소명을 받아들이고 우리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에게 성령이 선사하신 선물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을 허락하소서.../ 오 하느님, 성녀 포이베는 후원자라 불렸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과 낯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29]

미래교회 순례자들이 성 프락세데스 교회에서 포이베를 기억하고 또 이를 기념하는 의례를 행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여성 사제직의 역사적 근거와 권위를 창출하려는 행동이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장소에, 그리고 테오도라 에피스코파 모자이크에 이같은 사제직의 근거와 권위를 부여하려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미래 교회의 순례를 취재한 NPR(National Public Radio)의 취재원 실비아 포졸리(Sylvia Poggioli)는 성 프락세데스 교회의 순례가 다음과 같은 기도로 끝났다고 전해준다. "**성녀 프락세데스, 우리를 위해 빌어 주소서, 성녀 푸덴티아나,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주교 테오도라,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30] 이 기도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순례자들은 테오도라를 주교라 부른다. 불확실한 고고학적 근거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같은 고백을

---

28) "Συνίστημι δὲ ὑμῖν Φοίβην τὴν ἀδελφὴν ἡμῶν, οὖσαν καὶ **διάκονον** τῆς ἐκκλησίας τῆς ἐν Κεγχρεαῖς,ἵνα αὐτὴν προσδέξησθε ἐν κυρίῳ ἀξίως τῶν ἁγίων, καὶ παραστῆτε αὐτῇ ἐν ᾧ ἂν ὑμῶν χρήζῃ πράγματι, καὶ γὰρ αὐτὴ **προστάτις** πολλῶν ἐγενήθη καὶ ἐμοῦ αὐτοῦ." 로마서 16장 1-2. (강조는 필자). 공동번역성서에서는 "겐크레아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교우"라고 번역했고, 개혁개정판 성서에서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또는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라고 번역했다.

29) Phoebe of Cenchreae: Deacon of the Church 의례 지침서, *Celebrating Women Witnesses Resources Packet*, FutureChurch.

30) Sylvia Poggioli, "Pilgrims Trace Women's Role in Early Church" *NPR: Weekend Edition Sunday*, NPR(National Public Radio), 16 Apr. 2006.

할 수 있었던 것은, 포이베에 대한 기억과 의례가 성 프락세데스 교회 및 그곳의 테오도라 에피스코파 모자이크와 결합되면서, 이제 이 장소가 여성 사제직의 역사적 존재를 입증하는 새로운 내러티브와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미래교회 2007년 순례를 동반 취재한 마곳 패터슨에게 순례자 중 한명은 순례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에게리아'를 인용하면서 시작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31] 에게리아는 성서 속 장소들을 찾아보기 위해 서방에서 팔레스티나로 순례를 온 4세기 말 여성으로 그녀가 기록한 순례기는 초기 그리스도교 순례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이자, 몇 안 되는 초기 교회의 여성 저자의 작품으로서도 중요하다. 마곳 패터슨에게 에게리아를 인용하라고 조언한 이는 "그녀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고, 그것이 또한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라고 말했다. 에게리아와 미래교회 순례자들 모두 무엇인가를 찾는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에게리아가 '찾고 있었던 것'과 미래교회 순례자들이 '찾고 있었던 것'의 내용은 달랐다. 에게리아가 찾고 있었던 것은, 그녀가 믿는 성서의 이야기들이 일어났다고 이미 확인된 장소들이었다. 미래교회 순례자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아니 보다 정확히는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새겨 넣을 수 있는 장소들이었다. 따라서 에게리아의 순례 의례에서 읽혀진 성서구절들은 이미 그 장소와 확고히 연결된 이야기였고, 이 때의 의례는 기존의 구조와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래교회 순례자들의 의례에서 읽혀진 성서구절들은 그 장소와 연결된 필연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례는 장소와 내러티브의 불완전한 결합성을 극복하고, 장소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구조와 관계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

물론 미래교회 순례가 2007년 이후 아직까지 다시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미래교회 순례자들이 만들어낸 순례 유형을 따라 순례를 한 다른 순례자들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순례가 기존의 내러티브와 힘을 겨룰 만한 새로운 내러티브를 순례지에 고정시켰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 글

31) Margot Patterson, "Finding 'Herstory'".

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교회 순례 이후의 변화 및 그 효과가 아니라, 순례 당시 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이다. 즉, 미래교회 순례자들이 서 있던 장소에서 그들이 행한 의례가 그 장소에 어떠한 새로운 내러티브를 부여했으며, 장소, 그리고 그 장소의 내러티브 즉 신화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구조와 관계를 형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의례가 무엇을 하는가에 주목한 글이다. 즉 의례 수행자가 의례를 수행함으로써, 어떻게 그 장소와 그 장소를 둘러싼 내러티브들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의례에 관한 수행 이론적 접근이 남겨 준 가장 큰 교훈은 의례 수행자가 단순히 어떤 문화적 가치를 표현하거나 상징적인 각본에만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례 수행자들의 **"행위"자체가 어떤 인식과 해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곧 의례가 아닌 "의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끔 만들었으며, 이같은 "의례화"는 곧 인간 **행동** 전반이 어떻게 인간의 사회적 및 문화적 환경을 재생산하고 재형성하는 창조적 전략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32]

이같은 입장에서 보자면, 의례는 일정부분 과거의 유형이 재생산되지만 또한 이것이 재해석되고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한다. 미래교회의 순례 역시 일정부분에서는 기존의 가톨릭 성지 순례의 반복과 재생산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의례 행위를 통해서 성지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의례를 통해 신화를, 신학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여성주의 전례운동가들과 미래교회의 순례자들은 의례가 갖는 "불신을 넘어서는 수행의 힘"[33]을 믿는 자들로서, 이들의 노력은 의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곤궁에 순응하면서도 저항하고, 기존의 구조를 재생산(혹은 반복/인용)하면서 동시에 변화시키려하는"[34]전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가톨릭 순례, 여성 순례자, 의례, 의례화, 성지 내러티브, 여성주의 전례운동

---

32) Catherine Bell,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74; p. 81.

33) Roy A. Rappaport, *Ritual and Religion in the Making of Hum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283.

34) Jean Comaroff, *Body of Power, Spirit of Resistance: The Culture and History of a South African Peop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p. 196.

참고 자료

그림 1 프락티오 파니스(Fractio Panis), 그리스 경당, 프리스킬라 카타콤, 로마.

그림 2 그리스 경당 프레스코화, 프리스킬라 카타콤, 로마

그림 4 에피스코파 테오도라, 성 제노 경당, 성 프락세데스 교회, 로마.

원고접수일: 2011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11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일

Abstract

The Dissident Daughters' Pilgrimage: FutureChurch's pilgrimage to Rome

Hwasun Choe (Seoul National University)

A pilgrimage is usually an occasion to reinforce one's belief in a religious tradition. However, a pilgrimage can also be a way to express challenges to the orthodox belief.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FutureChurch's pilgrimages to Rome in 2006 and 2007, to show how pilgrims' rituals create and assert new and subversive 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Roman Catholic holy places.

Based in Cleveland, Ohio, FutureChurch is an organization working from within the Roman Catholic Church to advocate for women's ordination and for an end to mandatory priestly celibacy. FutureChurch organized pilgrimages to Rome in 2006 and 2007 to see the archaeological sites of women officeholders in the early church. Although the pilgrims wanted to see the historical evidence of female priesthood in the early church, something that was contrary to the orthodox teaching of Roman Catholic Church, their itineraries were not so different from those of average Roman Catholic pilgrims'; catacombs, churches, Vatican Museum, the Colosseum etc. However, what they remembered and more importantly what they did at those sites was quite different.

At each site, the FutureChurch pilgrims remembered one or more female leaders of the church and their stories, and performed rituals to celebrate these leaders. But unlike most pilgrimages, where the people and

their stories pilgrims remember at holy places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places, these women leaders and their stories were not historically or archaeologically connected to the places they visited. For example, Priscilla, a co-worker of St. Paul, was loosely related to the catacomb of Priscilla historically and Phoebe whom St. Paul had referred to as a deacon in one of his letters wa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hurch of St. Praxedes.

However, the FutureChurch pilgrims transcend this gap of place and narrative by ritualizing their memory of women leaders. When pilgrims performed a small e eucharist at Priscilla's catacomb, they created a new narrative connecting Priscilla of Rome, Priscilla, the co worker of St. Paul, and the Fresco in the Priscilla catacomb which is assumed to depict women's eucharist. In the same way, when the pilgrims performed a ritual calling of Phoebe the deacon and Theodora the bishop at the Church of St. Praxedes, their remembrance and rituals created a new narrative which connects this place to the female priesthood.

In this process, ritual created a new pilgrimage narrative at these traditional Catholic holy places. By ritualizing their memory of the women leaders forgotten in the Church history, the FutureChurch pilgrims create a new sacred narrative around the same old holy places.

The idea of trying to change sacred narratives through rituals is also found in feminist liturgy movements. In the sense that the FutureChurch pilgrims tried to create new sacred narratives at the established pilgrimage sites through ritualization, the FutureChurch's pilgrimage can be read as a part of feminist liturgy movements, and both of them showed the performative aspects of ritual which makes changes in perceptions and interpretations.

Key words : catholic pilgrimage, women pilgrims, ritual, ritualization, pilgrimage narrative, feminist liturgy movements